

OECD Agricultural Outlook: 2004/2013

Summary in Korean

OECD 농업 전망: 2004/2013

국어 개요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전반적인 소득 증가와 적당한 인구 증가 그리고 낮은 인플레이션은 세계 일인당 소득 향상과 소비 증진에 공헌하는 실정이다. 비회원국의 총소비는 OECD 회원국이 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추세는 특히 버터, 치즈, 전지분유의 유제품과 축산물 소비에서 더 뚜렷이 나타날 전망이다. 아울러 위 생산물의 소비 확대는 인구 증가보다 더 활발히 진전되어 영양실조와 기아현상 해소는 가능해질 것이다.

고소득과 기본식량필요를 해결한지 이미 오래인 OECD 국의 성숙된 시장은 소비자기호가 가금계류, 치즈, 전지분유 따위로 전환되는 반면 식량소비는 단지 소폭의 증가율을 낼 것으로 본다. 한편 같은 시기에 더 높은 경제성장을 보일 OECD 외 지역은 농산물과 가축사료 소비에 그들의 비중이 확장되면서 비회원국의 육류 생산 활동은 더욱 활성화된다.

밀, 쌀, 굵은 곡식알, 쇠고기, 치즈, 식물성 기름 등의 총생산 증가율은 총소비 것을 능가한다. 생산 증가의 대부분은 생산성 향상에 의할 것으로 보며 특히 경작면적 확장에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작물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들은 주로 비회원국에 밀집된 경향이다. OECD 외 지역의 생산증가율은 OECD 회원국, 비회원국 모두 합친 것을 능가한다. 그 결과, OECD 국이 세계 총생산에 기여하는 비율이 감소하는데 이 추세는 특히 버터나 탈지분유에서 현저하고 돼지고기나 전지분유에서는 OECD 기여가 덜하며 한편 여타 농산물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밀, 조 및 죽은 곡식알의 세계 무역은 적당하게 성장하는 한편 쌀 무역은 대폭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시기에 설탕 무역 또한 증가할 것이며 설탕의 주요 수출국 브라질은 시장점유율을 더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망보고서 시기동안 유제품 무역은 우유 총생산에서 여전히 낮은 비율을 고수할 것이고, OECD 국이 이 무역을 주도하지만 현저한 확장은 못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OECD 국이 위 생산물의 세계무역을 계속 주도할 것으로 본다. 반면 전지분유 외 유제품에서 OECD 회원국의 비회원국과의 순수출량은 후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육류 무역 특히 가금계류 무역에서 OECD 국의 막강한 위치는 지속될 추세이다.

본 전망보고서의 생산물은 거의 전부가 전망기간동안 명목가격이 상승할 것이나, 실질가격은 하락세를 탈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에서 국내정책과 무역정책을 주요 쟁점으로 한 이유는 이들이 시장은 물론, 경제통합 진행 및 국내외 가격격차 변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정책은 국내소비자에게 높은 비용 부담을 강요하고, 해외시장의 회소성 변화에 맞선 국내시장 반응을 무디게 하면서, 이내 몇몇 생산품의 국내외 가격 격차는 상당폭을 유지시키게 한다. 그리고 이같은 국내외 가격 격차가 지속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민감한 부문의 생산물 자유화가 더욱 필요함을 보여주며 특히 이는 수입보호조치 및 관련된 국내정책의 시정이 시급함을 의미한다. 이 시점에서, 현재 WTO 도하개발아젠다 한 부분으로 착수된 농업 협상이 새로이 진척된다면 무역자유화에 한껏 박차를 가할 것이다.

© OECD 2004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OECD 저작권 및 원본 출판물의 표제를 언급할 경우
본 개요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국어 개요는 영어와 프랑스어 표제로 각각 발간되었던
OECD 출판물의 발췌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OECD 출판물과 개요는
www.oecd.org/bookshop/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의
OECD Rights and Translation 부에서 담당합니다.

rights@oecd.org

Fax: +33 (0)1 45 24 13 91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의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를 방문하세요.

